

# 고용보험 증가폭 21년來 최저치 건설·제조업 가입자 지속 감소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1517만명 전년동월대비 11.5만명 증가 그쳐 건설업 가입자도 18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11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11월부터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감소하며 1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지난해 8월 1만3000명을 시작으로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 ▲11월 1만7000명 ▲12월 1만7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금속가공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1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1만6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감소한 6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3.8%(356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어든 것이 구인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11만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에 소폭 회복한다면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2035년 매출액 127조 목표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

한국전력 'NEW 비전선포식'  
본사업 고도화·수익구조 다변화 등  
10년간 로드맵, 4대 전략방향 설정

한국전력이 2035년 매출액 127조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전은 10일 한전 본사비전홀에서 '2025년 NEW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로드맵을 담아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2035 중장기전략'을 수립했다. 4대 전략방향은 △본사업 고도화 △수익구조 다변화 △생태계혁신 주도 △조직효율 극대화다.

이를 통해 목표 매출을 달성하고, 총 자산 규모 199조원, 해외·성장사업 매출 20조원, 총인원 2만6000명에 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재무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력계통의 불확실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0일 한전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2025년 NEW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

그러면서 "이에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리더'를 새 비전으로 선포하고 한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한전이 전력산업의 리더로서 전력공급의 효율과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모델을 혁신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다. /세종=한용수 기자

# 유망 중소·중견기업 120곳 정책금융 지원

산업부 '혁신 프리미어 1000'  
대출·보증한도 확대, 금리 등 혜택  
산업정책·금융지원 간 연계 강화

정부가 올해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120곳을 선정해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산업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작년 말 정책금융지원회의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 필요한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제공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금리를 최대 1.3% 포인트 감면하고, 시설자금 소요자금 한도를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95%로 상향하고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15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운전자금 한도도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간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 선정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전기차 충전시설 '중대 위법' 곳곳 적발

안전관리 소홀 추정 사업장 조사  
10곳 중 1곳 실제 관리위반 드러나

전기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업장 10곳 중 1곳에서 실제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2024년 10월 14일 ~ 11월 29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74개소(10%)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위법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한다.

적발된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중 경기와 강원 소재 2곳은 대행업무 범위를 초과해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서울·인천·부산·경기 소재 4곳은 안전관리업 등록 요건 미달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정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 규모 자금 공급

저금리 용자 지원 사업 모집 개시  
1~2%대 최대 110억 대출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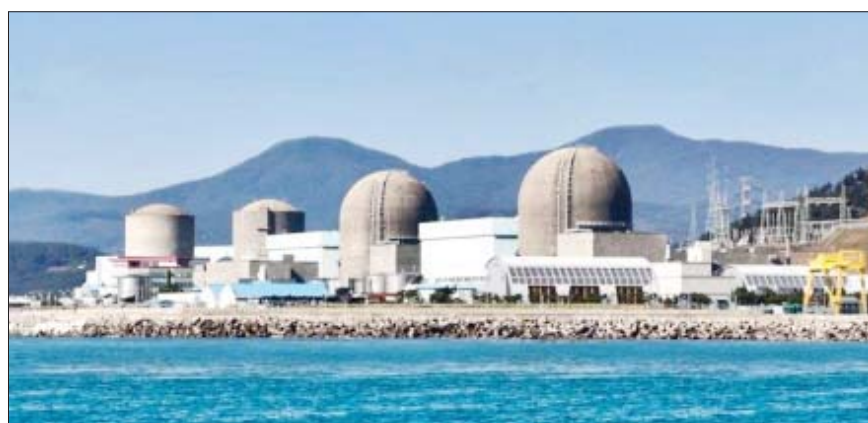
정부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AI(인공지능)발전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원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 2022년 25조4000억원, 2023년 32조1000억원으로 확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신설된 이후 69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뉴시스

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용자금이 성공적으로 지원됐고, 올해는 최근 신한올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 8개 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

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면역증강 동물백신 세계 최초 상용화

검역본부, 아주반트 시스템 개발  
주요 소모성 질병 면역증강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K-동물백신 아주반트(면역증강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이를 업체 씨티씨백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해, 수입 아주반트 대체 및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백신의 구성은 크게 항원과 아주반트로 나뉜다. 아주반트란 의학적으로 특정 약물이나 백신의 면역반응(효과) 또는 항암제 등의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추가되는 물질을 뜻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백신의 선천성 면역 유도뿐만 아니라 적응성 면역인 세포성·체액성 면역체계 강화에 있다. 백신 접종 초기는 물론 접종 이후에도 장

기간 지속되는 면역반응을 한층 더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그 결과, 구제역 및 국내 주요 소모성 질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 쉐코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과 어류인 연어 백신 적용 시에도 면역증강 효과가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이번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33건)과 논문 게재(12건)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말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와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현재 제품화를 진행 중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차세대 동물백신 아주반트(면역증강제) 시스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K-동물백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